



2022년 1월

선교편지 제 149호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할 때, 선교사들은 새롭게 마주하는 현지 문화에 매우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 불변의 '복음'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잘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서 혼합주의를 경계하면서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장벽들을 슬기롭게 깨뜨리며, 문화 마저도 변혁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한다면, 벌써 이곳에 정착을 한 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겪게 되는 문화 충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복된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계획하기 보다는, 빨리 12월이 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12월이 되면서 가장 먼저 겪는 변화는 매일 저녁 동네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어린이들, 학생들, 심지어 청장년들이 각 집을 돌아다니며 12월을 위해 급조한 모습이 역력한 성탄절 캐롤을 크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롤 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상하게 하는 추억의 모습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으면 집 주인이 나올 때까지 억지를 쓰는 모습으로 인해 마치 협박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어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돈을 잘 주는 집이라고 소문을 내는지, 같은 무리가 매일 밤 찾아 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무리 마저도 합세하여 12월 내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12월이 되면, 각 집마다 고막을 찢는 듯한 노래 소리로 인해 밤 잠을 자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스피커 볼륨을 크게 하여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도 온 동네가 그야말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것으로 보기에선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일 밤 이러한 소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나고자, 무더운 밤에 창문을 모두 닫고 고통스럽게 잠을 청해야 합니다.

또한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12월 초부터 'Merry Christmas in advance'라는 인사를 이곳 저곳에서 수 없이 듣게 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나를 위한 선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탄절의 '선물'이란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구제' 하는 것이라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최근 이곳의 다른 한인 선교사와 대화하는 중에 지난 수년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교인들로부터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참으로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난 14년 동안 현지 교인들로부터 단 한번도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경험을 나누며 허탈하게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년 12월이 되기 전부터 선물을 주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선 섬기고 있는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따로 준비해야 하고, 장년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여전도회에 속한 부인들을 위한 선물을 추가로 준비하고, 저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사역자들을 위한 선물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구제 물품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12월을 맞이하는 이곳의 모습이며 문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유대인 문화 가운데 사셨지만, 신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는 세상 문화에 스며들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땅 문화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본질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항상 밝게 웃으며 노래와 춤을 정말 좋아하는 현지인들의 얼굴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일이 되면 가장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의 생활 수준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더위에 지친 우리 부부의 모습 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할 때면, 할 말을 잃게 되고 머리 속이 복잡해 지기 시작합니다. 삶 깊숙하게 뿌리 내린 '가난'으로 인해 전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형편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먼저 하게 됩니다.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소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쫓기듯이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번듯하게 벽을 두른 안정된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해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거주할 땅이 없어서, 물 위에 대나무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그 집을 심방하기 위해서는 물 위에 영성하게 놓여진 임시 대나무 다리를 건너서 가야 하는데, 제 둔한 몸과 무거운 체중이 큰 장애가 될 정도입니다. 침대 한 개와 밥상 한 개가 겨우 놓일 만한 크기의 집에서, 병든 아버지를 수발 들고 4명의 동생을 보살피며 공부하는 대학생이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계속하게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형편에 일 보다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세계 몰아치면, 가재도구를 급하게 챙겨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연약한 교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렇듯 아직도 교회 내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나누어 줄 선물들을 준비하다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성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 모든 일들을 다 제쳐 두고 구제 물품을 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각 집을 심방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장로교회 교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 1번 물음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삶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3~4)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